

“한국, 2050년 세계 1위 고령국”



▲ 서울 탑골공원 앞 무료급식 기다리는 어르신들. 사진=연합뉴스

한국이 2050년에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가장 높은 한국이 30년 내 세계 최고 고령국으로 전락한다는 진단이다.

17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유엔의 세계 인구 추계를 인용, 2050년이면 한국의 고령화 정도가 홍콩에 이어 세계 2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홍콩이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2050년에 사실상 세계 1위 고령국이 된다는 의미다.

고령화 정도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비율로 추산했다. 한국에 이어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대만 그리스 등의 순서가 될 것으로 NYT는 내다봤다.

NYT에 따르면 올해 인구가 5,000만 명이 넘는 국가 중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제일 높았다. 브라질이 2위를 차지했고 콜롬비아 중국 태국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600만 명에서 2050년 2,400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은 950만 명에서 1,8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2050년이면 생산가능인구 1명당 노인 인구 0.75명으로 생산가능인구 4명이 노인 3명을 먹여 살린다는 의미다. 2050년 일본의 생산가능인구 1명당 노인 비율은 0.73명이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각각 0.7명, 0.69명이다.

집중 호우에 50여 명 사상



최근 한국에서 집중 호우로 인해 20일 현재 전국적으로 사망 46명, 실종 4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16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이곳을 지

나던 자동차가 침수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에서 119 구조대가 수색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한국 소방청

‘스몰 럭셔리’ 즐기는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스몰 럭셔리’ (Small luxury)의 확장세가 가파르다. 자신에게 아낌 없이 지출하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의 ‘취향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시장 규모가 부쩍 커지는 추세다. 이러한 트렌드는 특히 뷰티 카테고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7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올해 1~6월 롯데백화점의 럭셔리 화장품 카테고리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가량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고급 색조화장품과 니치 향수 매출이 각각 25%,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명품 매출 증가율(5%)의 4~5배 수준이다. 현대, 신세계 등 다른 유명 백화점도 해당 기간 럭셔

리 뷰티의 매출 성장률이 20.1%로 전체 명품 카테고리 매출 증가율(6.4%)을 크게 웃돈다.

고물가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 등으로 명품 매출의 성장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에서도 스몰 럭셔리 품목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가는 모양새다.

최근 주류시장의 ‘핫템’이 된 위스키도 스몰 럭셔리의 한 품목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한국에서의 위스키 소비량은 전년 대비 46% 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한국의 위스키 붐은 명품 소비 증가에 더해져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을 1인당 최대 명품 소비국으로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